

백제이식의 조형성연구

- 삼국시대 이식의 조형 특성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arrings of Baekje

- Through analyz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kingdoms' earrings. -

이혜영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Lee hye-young

Choun university

논문요약

Abstract

1. 서 론

2. 백제이식의 형식

- 2-1.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
- 2-2. 중간식 형태에 따른 분류
- 2-3. 수하식 형태에 따른 분류

3. 백제이식의 조형성

- 3-1. 백제이식의 조형적 특성
- 3-2. 백제이식의 제작기법
- 3-3. 삼국시대이식의 조형 특성비교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예적 관점에서 보는 백제이식의 조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백제이식의 구성형식과 연결부분에 따른 분류는 조형특성 파악을 위한 기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형식을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구성형식 중 중간식의 형태는 공구체(空球體), 공원 판상형(空圓板狀形), 원통형, 소환연접구체(小環連接球體), 소환연접반구체(小環連接半球體), 사슬형 등이 있으며 수하식의 형태는 원형, 심엽형, 단환형, 사익형(四翼形), 금모를 찌운 곡옥형 등이 있는데 수하식 역시 조금씩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백제이식의 조형특성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한성기, 웅진기, 사비기의 이식을 분류하여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백제이식의 조형성 연구에 있어 삼국시대 이식의 특성비교는 백제이식이 지닌 미적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이식과의 비교 연구 결과 일부는 서로 비슷한 형식과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는 각국마다 문화적 조형 감각이 반영된 형태로 모방 보다는 변용을 함으로써 특징적인 형태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백제이식은 백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신라나 가야의 이식처럼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기술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간결한 조형감각은 현대가 요구하는 미니멀리즘적 디자인과의 접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연구는 한 시대의 문화가 양과 질로 평가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란한 제작기법과 화려한 표현만이 금속공예품으로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감성과 문화가 호흡하는 미적 관점의 차이에 있음을 인식하고자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함으로써 미적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ve aspects of the earrings of Baekje Dynasty from the view point of artistic handicraft.

The forms of composing Baekje earrings and the connecting parts as the basis for grasp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of forms to be examined.

The form of the pendants in the middle among the composing forms, there are Gonguchae, Gonwonpansanghyeong, cylinder form, Sohwanyeonjeopguchae, Sohwanyeonjeopbanguchae and Saseulhyeong. In the forms of Suhashik, there are Wonhyeong, Shimyeophyeong, Tanhwanhyeong, Sabihyeong and Gokokhyeong. Suhashik forms also showed slightly modified from each other.

A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Baekje earrings show some variations depending on the eras,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y classifying them into the eras: Hanseong Dynasty, Woongjin Dynasty and Sabi Dynasty.

In the study on the artistry of Baekje earrings, the characteristics of earrings dating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compared to evaluate the aesthetics of Baekje earrings. In the comparative study of earrings dating back to the Three Kingdoms (Goguryeo, Baekje and Silla) and Gaya, some were found to be similar in form and style with the earrings reflecting each state's culture and sensibilities and thus making them unique. Baekje earrings also reflect the unique Baekje culture, and are not visually gorgeous or do not encompass an excellent manufacturing technology unlike earrings of Silla and Gaya; however, their simple aesthetics is expected to blend well with the modern minimalist desig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oint out the danger that cultures of an era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quantity and quality. Also,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visual aspects alone cannot be the yard to evaluate

the value of metal artifacts, but such a value lies in the difference in the aesthetic viewpoint on sensibilities and culture of that era. A study from diverse aspects is expected to prevent the mistake of underrating the aesthetic value of those traditional artifacts.

Keywords

Earrings of Baekje Dynasty,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ming, surface decoration

1. 서론

이식(耳飾)의 착용은 낙랑시대의 한(漢)의 영향을 받은 금속문화 유입과 함께 유래된 것¹⁾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금속공예의 발전으로 화려한 장신구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발달한 분야가 이식²⁾으로 조형적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장신구로서 한 몫을 했다.

삼국시대의 이식은 다른 장신구에 비해 많은 양이 출토되어 삼국시대 이식의 포괄적인 연구가 집중적으로 행하여 졌다. 그 중 다양한 형태와 많은 양이 출토된 신라·가야의 이식이 많은 연구대상이었다. 그리고 이식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표면장식기법인 누금 세공기법은 그 근원과 발전, 전이(轉移)에 관하여 여러 각도의 실험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백제이식은 간단한 형식 분류에 그치거나 타 장신구와 함께 서술되어 비교 연구에 이용되는 정도의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백제이식만이 지닌 독특한 감각의 문화적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조형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신라나 가야이식의 집중된 관심은 화려한 형태와 다양한 기법이 시각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구의 주요인이라고 사료되나 본 연구자는 한 시대의 문화가 양과 질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문화의 역사에 있어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을 직시하여 백제이식의 흐름과 시대적 조형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예적 관점에서 보는 백제이식의 조형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이식의 구성형식을 분류하고 구성상 각 부분인 중간식·수하식을 분류하여 형태를 알기 쉽게 정리할 것이다. 둘째, 분류된 구성형식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조형미를 분석한다. 셋째, 백제이식의 형태제작을 위해 사용된 기법들을 통해 금속공예의 기술적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삼국시대이식의 조형특성을 비교하여 백제이식의 특징적인 조형성을 살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금속공예품으로서 이식의 제작기법과 이식에 반영된 미적관점 등을 살펴보고 백제이식이 가지고 있는 구성형식과 조형성을 연구, 분석하여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백제에서 출토된 이식의 자료가 수합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 자료의 수합도 연구목적의 일부분으로 하였다.

전통은 근본과도 같은 것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화가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현대의 어떠한 것도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전통은 현대적인 변형 가능성을 무한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백제이식의 형식

2-1.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

백제이식은 몇 점의 소환식(素環式)이식과 대부분 수하부이식으로 삼국시대의 이식의 기본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거의 모두 세환(細環)이식으로 제작되었다.

[표1], 형식Ⅰ의 소환식 이식은 주환(主環)만 있는 기본적인 형식으로 직접 귀에 부착하는 둥근 고리형(형식Ⅰ-1)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사각봉을 꼬아 만든 형식(형식Ⅰ-2)도 있다. 소환식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소환식으로 제작된 것과 수하식의 결실로 주환만 남아 있는 경우로 추측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1], 형식Ⅱ는 세환에 중간식이 없고 수하식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둥근 고리에 수하식이 장식된 경우(형식Ⅱ-1)와 사각봉을 꼰 고리에 수하식이 장식된 경우(형식Ⅱ-2)로 고리와 수하식의 형태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형식Ⅲ은 세환에 중간식과 수하식을 장식한 형식으로 긴 금사로 연결한 중간식과 수하식(형식Ⅲ

1) 박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p. 112

2) 황호근, 한국장신구 미술사연구, 일지사, 1974, p.189

-1), 긴 사슬형 중간식과 수하식(형식Ⅲ-2), 작고 단순한 공구체(空球體)(형식Ⅲ-3)와 공원판상형(空圓板狀形) 그리고 중간식과 연결금구가 일체형(형식Ⅲ-4)의 중간식과 수하식의 다양한 구성을 볼 수 있다.

[표1], 형식Ⅳ 하나의 주환에 2개의 장식이 중간식과 수하식의 형식(형식Ⅳ-1,2)으로 구성된 것 또한 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특이한 구성을 한 익산입점리 출토의 얇은 금판을 꼬아 중간식을 만들고 두개의 쌍수업을 연결한 이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단순하지만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백제이식의 구조는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에서부터 특이하고 복잡한 구성까지 작은 변화와 다양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

[표 1]

형식	그림				비고
형식 I	1		2		1, 둥근고리형 2, 사각봉을 끈고리형
					
형식 II	1		2		1, 둥근고리형 2, 사각봉을 끈고리형
					
형식 III	1	2	3	4	1, 긴금사로 연결 2, 긴사슬형 연결 3, 공구체 4, 일체형
					
형식 IV	1		2		1, 무령왕이식 2, 무령왕비 이식
					

2-2. 중간식 형태에 따른 분류

백제이식의 중간식은 공구체·공원판상형·원통형·소환연접구체(小環連接球體)·소환연접반구체(小環連接半球體)·사슬형이 있다. 이외에도 금사를 감아 길게 만들거나, 길쭉한 금판을 꼬아 수하식과 연결하거나, 몇 개의 소환을 연결한 금사에 유리구체의 중심을 뚫어 만든 중간식도 보이고 있으나 극히 몇 개

에 불과하다.

첫째, 공구체[그림1]와 공원판상형[그림2]은 속이 비어 있도록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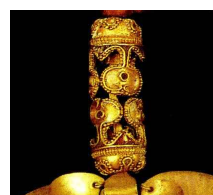
[그림1] 공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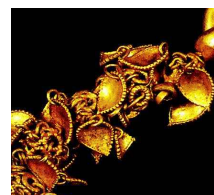
[그림2] 공원판상형

둘째, 원통형[그림3]은 날개부분을 오므려 만든 원기둥 모양 장식을 연결한 독특한 형태³⁾이다.

셋째, 소환연접구체[그림4]는 구체 5개를 상하로 연결하여 전후좌우로 작은 심엽형(心葉形) 영락을 장식하였다.



[그림3] 원통형



[그림4] 소환연접구체

넷째, 소환연접반구체[그림5]는 작은 고리를 연결하여 만든 반구체 틀에 유리구슬을 끼우고 심엽형장식을 하였는데 심엽형 장식의 가장자리에는 새김눈[刻目帶]을 장식하였다.



[그림5] 소환연접반구체

2-3. 수하식 형태에 따른 분류

수하식의 형태는 원형·심엽형·탄환형·사익형(四翼形)·금모를 썩은 곡옥형(曲玉形) 등이 있다.

첫째, 가장 간단한 형태로 원형[그림6]은 판 자체로만 이루어진 것과 판의 가장자리에 새김눈을 장식한 경우도 있다.

둘째, 심엽형으로 백제이식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며 형태가 다양하여 변형된 심엽형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심엽형에는 판이 1매로 된 단엽형(單葉形)[그림7]과 판이 3매인 복엽형(複葉形)[그림8]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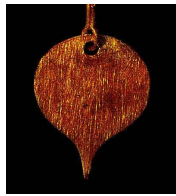
셋째, 탄환형[그림9]은 속이 빈 탄환 형태이다.

넷째, 네 날개모양[四翼形][그림10] 탄환형과 같이 매달린 수하식이다.

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인과 복식, 예맥, 2005, p.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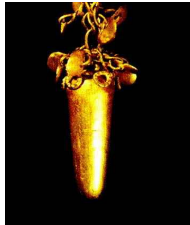
[그림6] 원형



[그림7] 단엽형



[그림8] 복엽형



[그림9] 탄환형



[그림10] 사비형

다섯째, 금모를 썬 곡옥 수하식[그림11]으로 금모의 양쪽에 작은 심엽형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이상 다섯 가지 중 백제이식의 수하식은 거의 심엽형이며, 원형의 예는 몇 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3가지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이식에서 볼 수 있다.



[그림11]곡옥수하식

3. 백제이식의 조형성

삼국시대의 이식은 크게 태환(太環)이식과 세환(細環)이식으로 구분되는데 백제이식은 모두 세환이며 구성형식에서도 살펴보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이식을 제외하면 화려함 보다는 간결함이 주는 모던(Modern)함이 실용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3-1. 백제이식의 조형적 특성

백제는 도읍에 따라 한성기(B.C.18-A.D.475), 웅진기(A.D.475-538), 사비기(A.D.538-660)로 나눌 수 있다. 백제의 강역과 천도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각 시대별로 주변국과의 교류 양상이 달랐을 것이다. 이는 백제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문화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도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이식의 조형특성에 있어서도 시대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식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① 한성기

한성기 이식은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신분이나 위엄을 나타내는 역할[威信財]도 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4) 재질은 금이 대부분이고 금동(청주 신봉동 54호분)도 1점이 있으며 세환에 유환을 걸고 중간 및 수하식을 금사(金絲)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간에 새김눈장식이 없는 공구체와 길쭉한 심엽형 수하식이 특징이다. 주환이 세환으로 이루어져 있어 컷 불에 끼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원주 범천리[그림12], 공주 수촌리[그림13], 서산 부장리45토광묘[그림14]이식은 중간식이 없으며 금사를 이용하여 심엽형을 장식했다. 그리고 공주수촌리Ⅱ-4호분[그림15]이식은 주환을 사각형의 금봉을 꼬아 만들고 중간식이 없이 금사를 감아 유환을 만들어 꼬리가 잘린 수하식을 장식하였다.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한성기 이식의 중간식은 사슬형, 공구체, 원판상형(圓板狀形)이 있는데 서울 석촌동3호분[그림16], 영산강유역[그림17], 전남곡성 방송리[그림18]이식은 사슬형이며 천안용원리 129호분[그림19], 청원주성리 2호[그림20]의 이식은 공구체이고 천안용원리 9호석곽묘[그림21], 서산부장리 6-6호분[그림22]의 이식은 장기알 모양의 원판상형이다. 이 중 긴 사슬형 중간식은 한성기 이식의 특징 중 하나인데 가야이식에도 사슬형 중간식이 나타난다. 천안 용원리 44호분[그림23]은 사각형금봉을 꼬아 만든 주환, 사슬과 구체로 연결된 중간식, 원형의 수하식 가장자리에 새김눈테로 장식한 구성이 특별하다. 구체를 중간식으로 장식한 경우는 반 구체 두개를 뿔뿔로 접합한 것과 일체(一體)로 만든 것이 있다.

4)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p.101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그림20]



[그림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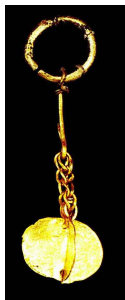


[그림22]



[그림23]

수하식은 원형과 심엽형이 있는데 심엽의 끝이 뾰족한 것과 길쭉한 경우로 대부분 단엽으로 제작되었는데 곡성 방송리의 이식은 복엽으로 가장자리에 새김눈테를 장식한 금동이식이다. 익산 입점리에서 출토된 이식은 한성기의 다른 이식의 수하식이 평면적인 것에 반하여 입체적인 사익형[그림24]초기의 형태를 보이고, 같이 출토된 다른 이식.[그림25]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쌍 수엽을 연결한 독특한 형태로 삼국 중 백제의 이식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림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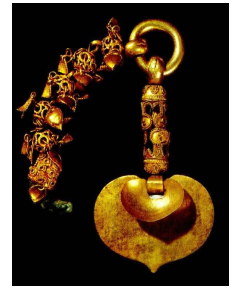
[그림25]

사익형수하식은 한성기 와전(瓦塼)에 사익형문이 출토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⁵⁾되나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한성기 이식은 간결하지만 백제이식 중에서 중간식은 다양하며 수하식은 단판으로 원형과 심엽형이 주를 이루고 사익형의 초기 형태도 나타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웅진기

대부분 공주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백제의 이식 중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형태이다. 무령왕 이식[그림26]은 주환에 작은 고리 2개를 연결 고리로 두 줄의 이식을 매달았다. 큰 이식의 중간식은 원통의 상하를 반구체로 봉하고 2개의 원통체를



[그림26]

대칭으로 연결하였고 원통체의 문양가장자리에는 금사와 금립을 장식하였으며 수하식은 큰 심엽형을 중심으로 작은 심엽형 2개를 대칭으로 장식했다. 작은 이식의 중간식은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소환연접구체 5개를 연결하여 5개의 구체에 새김눈테를 장식한 많은 수엽을 매달아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수하식은 담록색 곡옥에 누금기법이 가미된 금모(金帽)를 씌운 것으로 금모에도 좌우 대칭되게 작은 심엽형 영락이 달려있다. 무령왕의 이식은 형태와 구성이 독특하고 장식성도 뛰어나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신라의 이식은 경주 황오동 34호묘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의 에다후다야마[江田船山]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⁶⁾

무령왕비의 이식[그림27]은 주환 중간식 수하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1쌍은 주환 아래 유환을 걸고 그 고리에 2점의 이식을 장식하였다. 길쭉한 이식은 사슬형 연결금구에 탄환형 수하식을 매달았고 짧은 이식은 소환연접 반구체를 씌운 담록색 유리구슬을 중간식으로 장식하였으며 사슬형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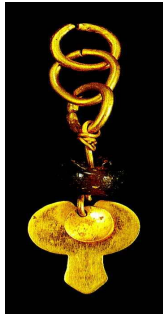
[그림27]

로 사익형수하식을 장식하였다. 중간식 유리구슬은 웅진기이식의 대표할 만한 특징으로 공주 교촌리[그림28]의 단독 유리장식과 공주 송산리 6호분[그림29] 이식의 청색유리위에 소환연접구체를 두개 덮어씌운 중간식이 예이다. 중간식에 유리를 장식한 경우 백제의 이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가야이식의 중간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주교촌리의 이식은 2점 출토되었는데 모두 특별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중 [그림30]는 유리구슬 중간식, 공구체위에 소환을 일정하게 땀하여 소환주위를 금립(金粒)으로 장식하였으며 소환의 안쪽에는 안료인지 칠보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만약 붉은색 칠보를 감입(嵌入)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고대 칠보는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파란(波瀾)이 있는데 파란은 금반지와 팔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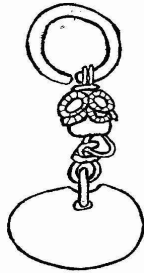
5) 서미경, 백제 복식의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4, p.159

6) 국립경주박물관, 신라황금, 시티파트너, 2001, p.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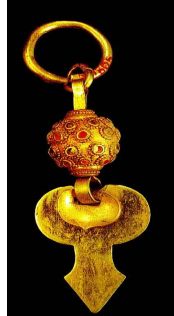
감입된 청색 한가지의 유약으로 400~500℃의 저화도에서 녹는다. 조선시대에 와서 다양한 색의 유약이 사용되었는데 빨강·노랑·녹색·청색·보라·흑색 등을 썼던 것으로 보아 이식에 감입된 붉은색을 칠보로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안료로 추정해 본다. 수하식은 두 점 모두 심엽형을 변형한 화살표형태인 중심판에 두개의 작은 심엽형판을 전 후로 장식하였다.



[그림28]



[그림29]



[그림30]

이상과 같이 웅진시대에는 중간식의 경우 금속과 유리구슬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구체를 사용하였고, 수하식은 심엽형이 많은데 한성기에 비하면 크고 넓적하며 단엽이 복엽으로 변화되었으며 심엽형이 평면에서 만곡의 효과를 준 입체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곡옥과 탄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하식이 나타난다.

5세기말 6세기 초는 장신구에 다양한 제작기법이 발달한 시기로 신라, 가야, 일본의 이식의 형태와 제작기법 등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국제적인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비기

사비기에는 금속공예문화는 발달하였으나 부장품(副葬品)을 간소화하는 관습 때문에 이식 역시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었다.7) 주로 부여시대에서 출토된 것들로 웅진시대의 이식에 비해 간단한 기법을 이용하여 크기는 작아 졌으며 무령왕릉의 이식의 중간식이나 수하식의 화려함 대신에 능안골 고분군 36호분의 이식[그림31]과 같이 세환으로만 제작된 것과 중간식이 구체로 상하로 고리를 접합한 일체형이다. 이중 일체형은 사비기 이식의 특징으로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 후기의 이식과도 유사하며 백제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오까야마시(岡山市) 야와다오오즈카(八幡大塚) 2호분 출토품도 거의 동일한 형태와 제작기법을 사용해 주목된다.8) 수하식은 웅진시대에 이어 심엽형 복엽으로 3장이 겹쳐진 형태가 대부분이다. 능산리 32호분 금제이식[그림

32] 역시 중간식이 일체형이고 수하식은 3장의 심엽형으로 이루어졌다. 관북리 이식[그림33]은 금동으로 제작되었지만 능산리 32호분 이식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능안골 49호분이식[그림34]



(그림31)

은 주환이 순금이고 중간식과 수하식은 금동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간식 역시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는데 두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여 하나의 장신구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백제인의 실험정신을 엿 볼 수 있다.



[그림32]



[그림33]



[그림34]

염창리 웅관묘(甕棺墓)이식[그림35]은 금동으로 제작되었지만 능안골 49호분이식과는 비슷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동남리고분 이식[그림36]의 구조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중간식은 상하 모자모양에 금립을 장식하였고 그 사이에는 소환을 연결시켜 원통형을 만들었다. 수하식은 길쭉한 심엽형을 중심에 두고 열쇠모양의 작은 판을 앞뒤로 하여 3장이 겹쳐진 형태이다.



[그림35]



[그림36]



[그림37]

이러한 중간식형태가 6세기 신라이식[그림37]과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와의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비기의 중간식은 구체를 연결한 일체형과 소환을 연결한 원통형 등이 있으며, 수하식은 심엽형과 변형된 심엽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웅진기에 비해 크기가 작고 단순한 조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착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무게로 제작하여 실용성을 고려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7)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p.101

8)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의 Global Pride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p.196

3-2. 백제이식의 제작기법

삼국시대의 이식은 그 시기의 금속공예품 중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현재 알려진 기록이 없어 현존하는 이식을 통해 기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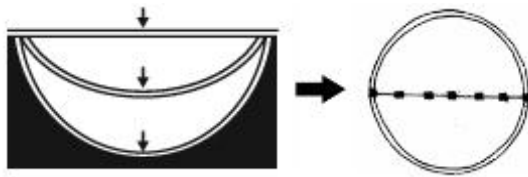
백제의 이식은 신라나 가야의 이식처럼 많은 양이 출토되지 않아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출토품마다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식이 가장 발달된 신라이식의 기법이 백제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예를 조형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백제이식의 모든 기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워 백제의 이식에 많이 사용된 제작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형기법으로는 주환의 세환, 중간식에서는 공구체·소환연접구체·무령왕이식의 원통형을 살펴보고 수하식은 심엽형·탄환형의 제작기법을 살펴보고 표면장식기법으로는 새김눈기법·누금세공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성형기법

· 주환은 세환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세환 제작방법을 살펴본다.

세환의 제작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속이 채워진 가는 봉을 둥근 고리로 만드는 방법과 판을 단면이 파이프 형태로 말아 구부러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으며 익산 입점리와 청원 주성리 2호분이식은 후자의 것은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중간식의 중공구는 원형의 금판을 반구형의 틀에 넣어 공이로 찍어내는 방법으로 반구형을 만든 후 두 개를 맞붙여 땜하여 구체를 제작한다.[그림38]



[그림38] 중공구제작

· 소환연접구체는 뛰어난 세선기법으로 동일한 크기의 소환 몇 개를 땜으로 연결하여 이루어졌으며 신라는 중앙에 새김눈 장식이 된 금선의 횡대(橫帶)를 중심으로 상하 소환을 대칭으로 땜하여 연결한 형태지만, 백제의 소환연접구체는 먼저 소환 7개를 땜으로 연결하여 반구체를 2개 만든 다음 2개의 반구체를 상하로 서로 엮갈리게 붙여 구체를 제작하였다.[그림39]



[그림39] 소환연접구체

무령왕 이식 중 심엽형 수하식이 달린 원통형 중간식은 날개모양을 투조하여 가장자리에 새김눈을 땜하고 오트린 다음 상하에 금모를 만들어 연결하였다.

· 수하식의 심엽형은 태환이식의 경우 평면의 심엽형은 0.2-0.3mm의 얇은 판으로 만들었는데 주연부에 많은 장식 때문에 모두 얇은 판으로 제작하였고, 세환의 경우는 두 판을 붙여서 두껍게 제작하거나 0.4-0.5mm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제작방법은 판에 심엽형을 그린 다음 오려서 만들었는데, 단엽판으로 제작하기도 하였고 중심의 기본판을 만든 다음 앞뒤에 심엽형의 작은 유엽(遊葉)을 달아 복엽을 만들기도 하였다. 유엽은 민판 경우도 있지만 두드러서 만곡(彎曲)된 형태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민판을 겹치게 땜하여 4개의 날개모양(사비형)을 만들기도 하였다.

탄환형 수하식은 중간식의 중공구 만드는 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틀을 이용해 만든 탄환의 절반 2매를 땜한 다음 소환연접 반구체를 머리에 씌워 제작하였다.

② 표면장식기법

· 누금세공기법은 금입자와 금세선을 얇은 금속의 표면에 장식하는 것으로 입자를 사용하는 세립세공(granulation)과 선을 사용하는 세선세공(filigree)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금세공기법의 두 기법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새김눈기법은 세선세공기법 중 하나로 이식의 표면장식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다양하게 발전된 기법으로 제작방법은 금속의 표면에 세선을 땜으로 붙여 일정한 간격의 눈금을 새겨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이다.

세립세공은 먼저 금속조각을 녹여 구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흑연판 위에 올려 녹이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입자가 타 재료와의 표면장력으로 구형을 형성하게 된다. 다만 금의 합금상태에 따라 알갱이 표면의 질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얻어진 입자는 체에 걸러 동일한 크기별로 선별한다. 입자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방법은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땜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접착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다.

땜을 사용하는 경우 모체의 합금보다 낮은 합금비의 땜을 봉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먼저 입자를 바탕 금속에 문양별로 배열한 뒤 약한 불로 서서히 가열하다가 온도를 높여가면서 땜을 놓아 융착시킨다. 이때 융접면은 바탕금속과 입자에 땜이 퍼져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입자의 형태가 변형될 수도 있어 매우 숙련된 용접기술이 요구된다. 화학적 접합법은 동화합

물(Cupric hydroxide, $\text{Cu}(\text{OH})_2$)에 트라가칸트(tragacanth)⁹⁾수액(樹液)이나 아교와 같은 유기물 접합제가 이용¹⁰⁾된다. 방법은 유기물인 아교나 트라가칸트수액을 동화합물 등의 구리화합물을 물과 희석하여 만든 용액을 입자의 전면에 도포하여 바탕금속에 배열한 뒤 건조시켜 가열하면 유기물 성분은 탄화되고 일정 온도가 되면 동의 피막이 형성되는데 피막은 입자를 바탕금속과 접촉부분만 결합시켜 접합점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탕금속과 입자가 합금되어 단단하게 붙는다. 동 화합물을 이용한 경우 얇은 산화막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입자의 접합면에 땀의 잔재가 없어 깨끗하고 완성된 후에는 금속화하여 재가열시에도 용해되지 않아 반복하여 접합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적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3.3.삼국시대이식의 조형 특성비교

삼국시대는 전 세계의 금제 장신구 가운데 이식의 출토예가 가장 많다.

고구려는 약 30여점의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태환이식이 고구려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의 태환이식은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I, 주환과 유환은 별도로 연결하고 그 아래 연결고리와 구체, 저울추 형의 수하식을 일체형으로 접합한 경우[그림40] II, 주환과 중간식은 I 과 큰 차이가 없고 수하식이 심엽형 경우[그림41]로 중간식은 백제 무령왕 이식에서 볼 수 있는 소환연접구체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III, 중간식과 수하식이 접합된 일체형이 아니고 각각 분리된 것을 판상(板狀)의 금구로 연결한 경우로 중간식의 형태는 신라이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환연접입방체이다. 세환이식은 6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I, 주환·유환·연결고리·소환연접입방체·추형수하식이 태환이식의 I의 경우와 같이 일체형의 경우. II, 태환이식의 II와 같은 경우. III, 주환·유환·금판연결금구·소환연접구체·심엽형 수하식 형식의 경우[그림42]. IV, 주환·유환·금실연결금구·공구체(2개)·심엽형수하식 형식의 경우. V, 주환·금실연결금구·사슬에 공구체 연결 형식. VI, 주환·금판연결금구 아래에 소환연접구체·사슬·추형수하식형식으로 다양하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이식은 태환이식과 거의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세환이식의 경우 신라 초기의 이식과 유사하며¹¹⁾ 태환과 세환이식에서 나타나는 일체형

중간식은 사비기 백제이식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지만 고구려이식의 중간식은 소환연접구체가 대부분이지만 백제는 중공구, 소환연접구체, 소환원통형구체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40]



[그림41]



[그림42]

신라이식은 정교하고 화려하여 신라인의 조형 감각과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신라의 태환이식은 중간식이 소환연접구체로 기본형태가 통일되어 있다. 주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하였고 중간식은 처음에는 구체와 반구체가 바로 연결되지만 차츰 사이에 소환을 넣어 길이가 길어진다.[그림43] 초기 이식의 길이는 5cm이하로 영락장식이 없었지만 점차 여러 개의 영락이 장식되면서 중간식의 길이가 길어지고, 수하식까지도 장식하여 더욱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양해졌으며[그림44] 경주 황남대총북분의 금제이식과 같이 10cm가 넘는 이식도 제작되었다. 이식의 중량은 보통 10-20g으로 장식이 많아지면서 귀 볼에 달기 힘들 정도의 무게로 제작되기도 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장품으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식의 무게는 사용에 관한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여 신라의 태환이식은 크기와 무게로 보아 실용성 보다는 의식용(儀式用)으로 추측하게 한다. 심엽형 수하식은 초기에는 민판이었는데 중기에는 중심에 세로로 새김눈테를 붙이다가 전성기에는 가장자리에 새김눈테와 금립[그림45]을 장식하였다. 태환이식의 변화와 특성은 중간식의 구조와 장식의 변화에 있다.



[그림43]



[그림44]



[그림45]

9) 트라가칸트 - 트래거캔스고무, Astragalus의 수액

10) 권향아, 삼국시대 이식의 누금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학회, 2002, pp14-15

11) 고려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96

신라의 세환이식은 고구려이식을 모델로 제작하였지만 고구려이식의 중간식을 변용하여 신라적인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세환이식은 귀 볼에 끼울 수 있도록 주환을 크게 제작한 실용적인 형태로 간편하면서 경쾌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5세기 초에는 작은 고리를 연결한 구체나 입방체 또는 공구체를 중간식으로 사용하였다.[그림46] 중간식은 중공구체로 표면에 금립과 돌을 띠를 땔며 장식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일체형의 형식은 있으나 각자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 어느 나라의 형태가 훌륭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기 독특한 개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이 중 백제이식의 경우 장식성이 없는 듯한 간결함이 현대적인 변용의 모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야의 이식은 출토된 예로 보아 남녀 구분 없이 각양각색의 이식을 사용하였다¹²⁾고 보며 신라의 세환이식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식의 형식과 형태로 보아 신라이식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환·중간식·수하식의 연결 형식에 따라 3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I형식은 소환식(素環式) 이식으로 세환 한 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II형식은 세환에 소환(小紬)을 연결한 것으로 수하식은 없다. III형식은 세환·중간식·수하식 3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식이다. 이 외에도 합천 옥전분묘군에서는 백제이식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식이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그 중 청원 주성리와 흡사한 옥전 20호묘의 이식[그림47]은 일반적인 이식의 형태로 공구체의 중간식과 길쭉한 심엽형이 수하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합천 옥전분묘군은 백제의 한성기 이식과 흡사하고 지리적으로도 백제권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정확히 가야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하나의 예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행한 “한성에서 웅진으로”에 실린 「45세기 백제의 물질문화와 지방지배」 논고에서 한성기 백제이식 분포도를 보면 합천 옥전분묘군에서 출토된 이식을 백제의 이식으로 분류¹³⁾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옥전11호묘의 이식[그림48]은 소환연접 반구체를 구슬에 상하로 씌워 연결하고 사이 사이에 소형 심엽형 영락을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백제 무령왕비 이식과 흡사한 형태이나 왕비의 이식은 소환연접 반구체를 구슬에 모자처럼 씌워 담록색 구슬을 답답하지 않게 여백을 주어 색상을 돋보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예로 보아 백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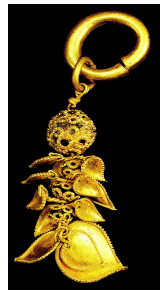
조형적인 시메트리(Symmetry)는 비대칭적 균형의 표현이고, 균형은 안정과 정지의 단조로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언밸런스(Unbalance)를 응용하기도 하는 감각이 모방 보다는 변용을 선택한 백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나타나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은 미니멀리즘(Minimalism)적 조형감각으로 발전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림46]



[그림47]



[그림48]

4. 결론

삼국시대 장신구 중 가장 섬세한 공예품의 하나인 이식은 그 시대의 장신구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세공품으로 그 시대 부장품으로 쓰인 타 장신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용 가능하게 제작된 실용적인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예적 관점에서 보는 백제이식의 조형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형식과 연결부분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백제이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형식을 4가지형식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단순한 구조와 소박한 형식에서부터 독특하고 복잡한 구성까지 변화와 다양함을 보이고 있었다.

구성형식 중 중간식의 형태는 공구체·공원관상형, 원통형·소환연접구체·소환연접반구체·사슬형 등이 있으며 수하식의 형태는 원형·심엽형·탄환형·사익형·금모를 씌운 곡옥형 등이 있는데 수하식 역시 똑같은 형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변형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사익형 수하식은 백제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며, 이외의 수하식은 고구려나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각국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백제이식의 조형특성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형태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성기 이식은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신분이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공구체의 중간식과 심엽형 수하식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기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공존하였다. 웅진기는 백제의 이식 중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형태로 중간식과 수하식은 다양해진다. 백제만의 독자적인 조

12) 이호관, 耳飾, 한국고미술협회, 1991, p.30

13)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한성에서 웅진으로, 학예사, 2006, p.217

형특성을 잘 드러내는 무령왕릉의 이식은 형태와 구성이 독특하고 장식성도 뛰어나 최상의 품격을 갖춘 장신구로 현대에도 뒤지지 않는 조형감각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비기의 중간식은 구체를 연결한 일체형이고 수하식은 심엽형과 변형된 심엽형의 형태이다.

조형성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삼국시대의 이식의 비교는 백제이식이 지닌 미적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식과의 비교 연구 결과 일부는 비슷한 형식과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각국의 개성적인 조형감각이 반영된 것으로 특징적인 형태로 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백제의 이식은 백제의 문화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신라나 가야의 이식처럼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기술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비대칭적 균형의 표현으로 안정과 정지의 단조로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언밸런스를 응용하기도 하는 감각이 미니멀리즘적 조형감각으로 발전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현대가 요구하는 디자인과의 접목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림자료목록

그림1, 2, 7, 12 - 한성에서 웅진으로, p.90
 그림3, 4 - 新羅黃金, p.254
 그림5,10 - 百濟人과 服食, p.111
 그림6, 11, 24, 28, 30 - 新羅黃金, p.256
 그림8, 33, 35, 36 - 新羅黃金, p.257
 그림9 - 新羅黃金, p.255
 그림13 - 한성에서 웅진으로, p.88
 그림14,22 - 한성에서 웅진으로, p.91
 그림15 - 한성에서 웅진으로, p.89
 그림16 - 新羅黃金, p.253
 그림17 - 국립광주박물관, p.72
 그림18 - 百濟人과 服食, p.104
 그림19, 20 - 百濟人과 服食, p.102
 그림21, 23 - 百濟人과 服食, p.103
 그림25 - 한성에서 웅진으로, p.92
 그림26 - 百濟人과 服食, p.109
 그림27 - 百濟人과 服食, p.110
 그림29 - 삼국시대장신구의 조형형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p.102
 그림31, 32, 34 - 百濟人과 服食, p.113
 그림37 - 新羅黃金, p.104
 그림40 - 新羅黃金, p.241
 그림41, 42 -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p.241
 그림43 - 新羅黃金, p.81

그림44 - 新羅黃金, p.79
 그림45 - 新羅黃金, p.89
 그림46 - 新羅黃金, p.96
 그림47 - 新羅黃金, p.278
 그림48 - 新羅黃金, p.284

참고문헌

- 1)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 2) 국립경주박물관, 新羅黃金, 시티파트너, 2001
- 3)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03
- 4)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한성에서 웅진으로, 학예사, 2006
- 5) 국립부여박물관, 百濟人과 服飾, 예맥, 2005
- 6)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공방, 예맥, 2006
- 7) 박영주, 韓國紋樣史, 미진사, 1983
- 8) 황호근, 韓國裝身具 美術史研究, 일지사, 1974
- 9) 권향아, 삼국시대 이식의 누금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학회, 2002
- 10) 김문자, 삼국시대 心葉形 귀걸이 樣式에 대한 研究, 한국복식회, 1997
- 11) 김종식, 삼국시대 장신구의 조형형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논문, 2004
- 11) 서미경, 백제 복식의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4
- 12) 이호관, 耳飾, 한국고미술협회, 1991
- 13) 주경미,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한국미술사학회, 1996